

# 敦煌本 傷寒論 중 『輔行訣藏府用藥法要』 에 관한 研究

박종현, 박시덕, 신상우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Research on the Fuhengjue Zangfuyongyao Fayao in the Dunhuang Testament

Jong Hyun Park, Si Deok Park, Sang Woo Shin

Oriental Medical College of Daegu Haany University

It is generally called that the Dunhuang Manuscript 『Shanghanlun』 (敦煌本 『傷寒論』) is all the series of documents relating to the Shanghanlun (傷寒論) included in one of the testaments, which was, in 1900, originally found in the Cangjing hole (藏經洞, Mogao cave (莫高窟), Dunhuang (敦煌), Gansu province (甘肅省)). I tried to research on the 『Fuhengjue Zangfuyongyao Fayao』 (『輔行訣藏府用藥法要』) in the Dunhuang Testament (敦煌遺書), which include main texts of the 『Tangyejingfa』 (湯液經法) upon which the 『Shanghanlun』 (傷寒論) is based, because it seems to be in the category of the Dunhuang Manuscript 『Shanghanlun』 (敦煌本 『傷寒論』) in the broadly extended sense.

key words : Dunhuang, Shanghanlun, Fuhengjue Zangfuyongyao Fayao, Tangyejingfa

### I. 緒 論

『傷寒論』은 東漢 시대 張機의 저작으로 春秋戰國과 東漢을 거치면서 형성된 醫家의 임상지식과 內經, 難經, 神農本草經 등의 의약경험을 두루 섭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유행했던 疫疾인 傷寒病과 일반 雜病을 직접 治療하고 경과를 관찰하면서 治法과 方藥을 研究하고 기록한 臨床醫案類의 서적이다<sup>1)</sup>. 이 『傷寒論』은 漢나라 때 세상에 나온 이래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으며 망실되었는데, 晉나라 때 王叔和가 차례를 대조하여 정리하였고, 宋나라 때 林億 등이 정리하여 『傷寒論』 『金匱要略方論』 『金匱玉函經』 세 책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金代 成無己가 처음으로 傷寒論에

체계적으로 주석을 달아 注解傷寒論을 지었으나 宋代에 이미 없어졌고, 현존하는 것은 明清代의 판각본이다<sup>2)</sup>.

『傷寒論』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오래지 않아 散逸되고, 긴 세월을 내려오면서 경학자, 수집가들이 끊임없이 발견, 정리, 간행하여 그 판본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傷寒論』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와 문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텍스트의 원형과 관련한 다양한 판본학적 논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논문은 1900년대 초에 敦煌 莫高窟 藏經洞에서 발견된 다량의 敦煌遺書 중 『傷寒論』 殘卷에 관한 연구로, 敦煌本 『傷寒論』은 필사된 연대 상, 그리고 발견되기 전까지 한번도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傷寒論』의 역사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傷寒論』

□ 접수 ▶ 2007년 2월 28일 수정 ▶ 2007년 4월 5일 채택 ▶ 2007년 4월 16일  
□ 교신저자 ▶ 신상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65번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Tel 82-53-770-2250 Fax 82-53-768-6340 E-mail swshin@swshin.com

1) 中尙珩, 金楨己, 「『傷寒雜病論』의 診斷體系에 關한 研究」, 『대한 동역병리학회지』, 1998;12(1):1.  
2) 유진보, 著, 전인조, 譯,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서울:아카넷, 2003:414-5.

과 관련한 논란을 일부 불식시킬만한 문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傷寒論』의 중요한 근간이 된 『湯液經法』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 ‘敦煌本 『傷寒論』’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輔行訣藏府用藥法要』를 중심으로 간단한 소개와 내용, 진위 및 필사연대를 살펴보고, 아울러 『傷寒論』과의 관계를 비교 검토해 보았다.

## II. 本 論

### 1. 敦煌遺書에 대한 소개

고대 동서양의 교통, 무역, 문화교류의 요지로서 실크로드의 통로였던 敦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꼽힐 만큼 귀중한 문화예술의 보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지명학으로서 국제성을 띤 학문 분야, 즉 ‘敦煌學’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敦煌學은 敦煌遺書, 敦煌石窟藝術, 敦煌學 이론이 위주가 되고 敦煌 역사지리까지 연구대상으로 삼는 한 부류의 학문을 가리키는 데<sup>3)</sup>. 이 가운데 敦煌遺書는 주로 1900년에 藏經洞에서 발견된 대량의 遺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sup>4)</sup>.

그 안에는 서기 3세기에서 11세기까지의 종교문헌, 사회문서, 자수 등 진귀한 유물 수 만여 점이 잠들어 있었다. 이 발견은 전 세계의 학자들을 놀라게 하였고, 이들 문서를 현재 학계에서는 敦煌遺書라고 부르고 있다. 敦煌遺書의 내용은 兩晉으로부터 北宋까지의 약 천년간의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문학, 예술, 천문지리, 의학, 인쇄 등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총망라하고 있어, ‘敦煌學’이라는 신흥학문을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25개 나라와 지역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1) 敦煌遺書 중 한의약 관련 문헌

한의약은 敦煌石窟藝術과 敦煌遺書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대량의 벽화, (채색한) 소조, 도안, 책의 머리말, 서법 및 藏經洞의 대량 遺書중에 한의약과 관련된 상당한 수량의 기록과 묘사가 있다<sup>5)</sup>. 특히 敦煌遺書 중에는 진귀한 한의약 관련 문헌들이 많이 있는데, 敦煌遺書 중 한의약 관련 문헌들을 분석해보면 陰陽五行學說, 臟腑理論, 脈學, 診斷,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등의 임상각과, 鍼灸, 醫方, 本草學, 醫事雜論, 古藏醫藥, 道教醫學, 佛教醫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sup>6)</sup>.

#### 2) 敦煌遺書 중 『傷寒論』 관련 문헌

현재 알려진 敦煌遺書 중의 醫經 잔권은 10여 종인데, 『傷寒論』도 그 중 하나이다. 편호 P:3287, S:202 중의 일부가 바로 『傷寒論』의 내용을 직접 담고 있으며, 이를 특별히 敦煌本 『傷寒論』이라 칭한다. 『傷寒論』의 기원 중 하나인 『湯液經法』을 기초로 한 『輔行訣藏府用藥法要』도 『傷寒論』과 연관을 가진다. 한편, 『傷寒論』의 著者인 張仲景이 지었다는 4종의 『五臟論』이 있다. 이는 臟腑學說을 위주로 한 의서의 한 종류로 『耆婆五臟論』, 『明堂五臟論』과 더불어 현존하는 최고의 五臟論類 저작이다<sup>7)</sup>. 그러나, 이는 또 隋唐시기의 저작으로 간주되며<sup>8)</sup>, 본 문헌이 광범위하게 유전되고 전사되는 과정 중에서 그 가치를 드높이고자 다른 사람에게 탁명을 하여 사람들이 진기하게 여기고 소중히 하도록 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9)</sup>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2. 『輔行訣藏府用藥法要』

敦煌醫學卷子가 출토된 이래로 그 역사적 연구가치와 임상적 실용가치는 한의학 연구가들에게 끊임없이 긍정을 받았다. 그것은 隋唐시기 醫學文獻의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古代經典醫籍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참고근거를 제공하였다<sup>10)</sup>. 이들 가운데 『輔行訣藏府用藥法要』(이하 간단히 『法要』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있는데, 『法要』중에는 『內經』 및 古佚書 『湯液經法』에 대해 모두 비교적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실린 조문은 더욱 합리적이어서 古佚書 『湯液經法』의 원형을 재현할 만하다. 책 중에서는 여러 차례 南陽 張機와 그의 저작 『傷寒雜病論』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본 책의 학술적 가치는 경시할 수 없다<sup>11)</sup>.

6) 叢春雨, 「談敦煌古醫籍的學術成就和文獻價值」, 『中醫文獻雜誌』, 1997;(4):1-3.

7) 王淑民, 龐莎莎, 「敦煌吐魯番出土古本五臟論的考察」, 『中華醫史雜誌』, 1995;25(1):46.

8) 전게서, 1995;25(1):46.

9) 朱定華, 전게서, p.9.

10) 牟慧琴, 「敦煌‘大陽旦湯’與『金匱』陽旦湯關係考」, 『甘肅中醫』, 1997;10(3).

11) 張永文, 郭郡浩, 蔡輝, 「敦煌遺書『輔行訣藏府用藥法要』探究」, 『安徽中醫學院學報』, 2003;22(3):3.

3) 전게서, p.48.

4) 전게서 p.257.

5) 叢春雨, 「敦煌中醫藥學及其文獻價值」, 『絲綢之路』, 1996;(4):29.

### 1) 『輔行訣藏府用藥法要』에 대한 간단한 소개

『法要』는 敦煌遺書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저작으로, 『法要』라는 書名 아래에 ‘華陽隱居陶弘景撰’이라고 題를 가하였지만, 실제로 陶弘景 본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이 그의 설을 모아서 완성한 것이며 陶弘景을 존경하는 뜻으로 托名한 것이다<sup>12)</sup>. 의사학자들은 『法要』에 현존하는 각 편에서 인용한 인명, 서명, 경문, 경방 및 경방에 쓰인 약물의 고찰을 통해 『法要』를 편찬할 때 근거로 한 문헌이 모두 짚이전의 초기 의학문헌임을 알게 되었으며, 책이 만들어진 연대는 대략 陶弘景의 후에서 隋唐代 사이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13)</sup>. 책이름에 ‘輔行訣’이라고 앞에 덧붙인 것은 醫藥療疾, 治病保健을 修道를 補助하고 身體를 強健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뜻을 포함한다<sup>14)</sup>. 이 두루마리는 ‘梁華陽隱居陶弘景撰’이라고 題하였지만, 『法要』 중에는 대량의 『內經』, 『湯液經法』의 내용을 인용하였고, 그리고 또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기록이 있다<sup>15)</sup>.

『法要』가 발견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단지 옛날에 『湯液經』 혹은 『湯液經法』이 있는 줄만 알았지 정작 그 내용이 어떤지는 몰랐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皇甫謐의 『鍼灸甲乙經』 序文에 ‘伊尹은 성인에 버금가는 재주로서 『神農本草』를 撰用하여 『湯液』이라 하였다.’라고 한 것이 전설 속의 상상을 근거로 나온 것이라 의심하였다. 이 책의 발견은 『湯液經法』의 주요 내용 및 『湯液經法』, 『傷寒雜病論』, 그리고 이 책, 이렇게 셋의 醫方에 긴밀한 전송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었다<sup>16)</sup>.

### 2) 『輔行訣藏府用藥法要』의 原貌와 內容

張大昌에 따르면, 이 책은 얇은 비단(綾) 위에 필사되어 있는, 즉 견직물이다. 두루마리의 길이는 약 1丈 2, 3尺이고 높이는 1尺 정도이다. 두루마리의 처음에는 三皇像이 있고 三皇像의 사방에는 二十八宿와 朱雀, 玄武, 靑龍, 白虎의 四神像이 보워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주로 五臟病證의 변증 및 그 補瀉하는 藥方, 用藥法, 傷寒病의 二旦, 六神方 및 갑작스레 죽는 것을

구해내는 각각의 법이다. 이 일부는 五臟辨證을 주로 하는 중요한 임상 저작이다. 이 책의 醫方은 후세에 전해지는 고의서 『傷寒論』, 『金匱要略方論』과 많은 부분에서 서로 같거나 유사한 면이 있으며, 똑같이 옛날의 經方에 속한다<sup>17)</sup>.

원 두루마리의 내용은 五行學說을 綱으로 하여 五臟의 補瀉 및 虛勞 등과 修道煉氣, 養眞修仙의 초보적인 것, ‘영원한 삶을 구하고자 하면 먼저 반드시 질병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논술하였고, 섭렵해 들인 經方은 47首를 헤아린다<sup>18)</sup>.

### 3) 『輔行訣藏府用藥法要』의 진위 및 필사연대

中國中醫研究院의 馬繼興은 ‘『輔行訣藏府用藥法要』의 필사본이 근거한 원서는 거기에 보존되고 인용된 옛 俗字, 諱字, 別名, 옛 병증의 명칭, 그리고 방제의 배오 특징, 문장결구와 풍격 등의 다방면의 내용에서 절대로 근세나 혹은 요즘 사람이 만든 모조품이 아님을 확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출판연대의 하한은 절대로 북송초기 이전보다 늦지 않다.’(『敦煌醫藥文獻輯校』)라고 하였으며, 중국 사회과학원의 張政烺, 李學勤은 ‘이 책은 근대의 위작이 아니다. 다만 빠르기가 梁代까지 이르는 불가능한 작품이다. … 후대의 사람이 陶弘景의 설을 集錄해서 만들었고 본래의 선생을 존경하는 뜻에서 책이름 아래에 ‘華陽隱居陶弘景撰’라고 題를 가하였다.’라고 감정하였다<sup>19)</sup>.

한편, 본문 중에 玄武湯을 모두 眞武湯으로 고치지 않았고, 宋의 諱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리된 것이 宋代 이전이며, 그 책이 완성된 연대는 대략 陶弘景의 後에서 隋唐 사이에 있음을 설명한다<sup>20)</sup>.

### 4) 『輔行訣藏府用藥法要』와 『傷寒論』

『法要』에서는 伊尹이 『湯液經法』을 지었다고 하였고, 張仲景의 『傷寒論』이 『湯液經法』을 계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晉皇甫謐이 『鍼灸甲乙經』 序文에 ‘伊尹은 성인에 버금가는 재주로 『神農本草經』을 가지고 『湯液』을 지었다.’, ‘仲景은 伊尹의 『湯液』을 확충하여 심수권으로 만들었다.’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sup>21)</sup>. 이에 『法要』의 기록을 통해 이 책과 『湯液經法』, 『傷寒論』의 관계를 살펴본다.

12) 전계서, 2003:22(3):3.

13) 寶迎春, 「『傷寒論』方劑의 文獻研究」,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9.

14) 叢春雨, 『敦煌中醫藥精華發微』,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0:2.

15) 張永文, 郭郡浩, 蔡輝, 전계서, 2003:22(3):3.

16) 王淑民, 「敦煌石窟秘藏醫方」, 北京:北京醫科大學中國協和醫科大學聯合出版社, 1999:19.

17) 王淑民, 전계서, p.2.

18) 叢春雨, 전계서, pp. 1-3.

19) 王淑民, 전계서, p.1.

20) 叢春雨, 전계서, p.3.

21) 鄭城采, 「傷寒理論의 發展史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9:6.

### (1) 『湯液經法』에 대한 기록

『湯液經法』(『湯液經』이라고도 한다)은 『漢書藝文志方技略』에 ‘湯液經法三十二卷’이라 하여 맨 먼저 보이며, 작자는 미상이고, 漢代이전 早期의 方劑學 전문서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어떤 사람은 이 책이 대략 漢代에서 南北朝에 이르는 시대에 유행하였고 唐代에 이미 失傳된 것으로 고증하였다<sup>22)</sup>.

『法要』중에는 商나라에 伊尹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그는 『神農本草經』과 『桐君采藥錄』에 의거하여 『湯液經』 3권을 저술하였으며, 그곳에는 360수의 방이 실려 있는데, 上品인 上藥, 中品인 中藥, 下品인 毒藥이 각각 120首라고 기록하고 있다. ‘모두 360首인데, 실로 萬代醫家의 規範이고 蒼生護命의 大寶이다. 현재 흔히 소용되는 것 60首를 조사해서 기록하는데, 산중에서 질병에 걸리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는 용도로 갖추어 놓는 것일 뿐이다.’ 이것으로부터 『法要』의 작자가 『湯液經法』을 분명히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가운데 60首의 방제를 기록하여 놓았다고 하였으나 『法要』중에는 실제로 51首의 처방만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五臟 및 心胸病의 大小補瀉方이 각 1首씩 모두 24首, 五臟瀉方 5首, 五臟補方 5首, 二旦 및 六神(실제는 四神이다)湯의 大小 각 1首씩 모두 12首, 開五臟竅方 5首이다. 『法要』중에서 기록된 51首의 방제를 통해 『湯液經法』의 組方, 用藥의 특징을 볼 수 있고, 그 책의 원형을 볼 수 있다<sup>23)</sup>.

『法要』중에는 附圖하나가 있는데, 經方의 組方 원칙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 또 ‘이 그림은 『湯液經法』의 요점을 모조리 담고 있는 오묘한 것이다. 학자들은 이것을 능히 암송하여야 의도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sup>24)</sup>.

### (2) 『傷寒論』에 대한 기록

『法要』에서는 또 ‘外感天行的 經方 치료에는 二旦, 六神의 大小 등의 탕이 있다. 옛날 南陽의 張機는 이 여러 가지 방에 의거하여 『傷寒論』을 지었는데, 치료가 명확하고 다 갖추어져 있어서 후학들이 모두 우러러 받들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經方은 ‘그 처방의 의미가 深妙하여 俗淺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한, 진시대 이후의 여러 이름난 의사들의 무리, 張機, 衛巳, 華元化, 吳普, 皇甫玄晏, 支法存,

葛稚川, 范將軍 등은 모두 당대의 이름난 賢人들인데 모조리 이 『湯液經法』을 스승으로 본받아 질병의 고통을 연민으로 구하고 중생들에게 복을 지었다.’ 그러므로 『法要』를 근거로 하면 張仲景의 經方은 당연히 『湯液經法』을 監本으로 하고 二旦, 六神의 大小湯을 참조해서 완성하였다고 하였으며, 또한, ‘후학들이 모두 그것을 우러러 받들었다’라고 한 것은 후인들이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을 方書의 始祖로 불렀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張仲景의 方이 ‘그 사이 증감되어 비록 다른 것을 천단하고 혹은 새로운 효과에 이르기도 하여 舊經을 어지럽히는 듯하지만 그 취지는 여전히 方圓의 規矩이다.’라고 한 것은, 張仲景이 方이 證에 따라 加減을 하고, 새로운 효과를 증가시켜 치료의 범위를 확대하였지만 여전히 經方의 規矩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sup>25)</sup>.

### (3) 『法要』와 『傷寒論』 중의 방제 비교

『法要』와 『傷寒論』의 방약 중에서 똑같거나 혹은 비슷한 방제에는 모두 18首가 있다. 또한 대부분(특별히 二旦, 六神湯) 『傷寒雜病論』중의 張仲景의 經方과 組成, 藥量, 主治, 用法 및 加減變化 등의 방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똑 같고 단지 方名에만 차이가 있다<sup>26)</sup>.

#### ① 五臟補瀉湯과 『傷寒論』 方劑 비교

小補心湯은 張仲景의 栝樓薤白半夏湯과 방제의 組成이 같고 主治도 역시 같다. 오직 약을 다릴 때 張仲景은 百酒一斗를 사용했고, 여기서는 白截漿 一斗를 사용했다. 大補心湯은 張仲景의 栝樓薤白半夏湯과 組成 및 主治가 똑같고, 小瀉心湯은 張仲景의 瀉心湯과 組成이 같고, 用法은 ‘끓인 물 3升到 한 食頃 쯤 담귀 두었다가 찌꺼기를 짜내 버린다.’ 小瀉脾湯은 『法要』중에서 ‘脾氣實하여 下利清穀, 裏寒外熱, 腹冷, 脈微한 者’를 치료하는 방이다. 이 方은 張仲景의 四逆湯과 조성이 같은데, 다만 이 方이 主治하는 ‘脾氣實證’은 사실상 일종의 脾氣가 虛寒한 象이다. 小補脾湯은 張仲景의 理中丸과 組成, 主治 및 加減法이 모두 똑같다. 瀉心湯은 張仲景의 乾薑黃連黃芩人參湯과 用藥이 서로 유사하고 오직 甘草 한 가지가 많을 뿐이고, 主治는 ‘救誤用清下, 其人陽氣素實, 外邪乘虛陷入, 治心下痞滿, 食不下, 利反不止, 雷鳴腹痛’이다. 瀉腎湯은 張仲景의 茯苓五味桂枝甘草湯과 서로 유사한데, 단지 生薑 하나만 많고, 主治는 ‘救

22) 吳紅彥, 劉喜平, 「敦煌遺書中有關方劑學的文獻研究」, 『甘肅中醫學院學報』, 2003;20(2):48.

23) 張永文, 郭郡浩, 蔡輝, 전게서, p.4.

24) 전게서, p.4

25) 張永文, 「以敦煌遺書『法要』探討張仲景經方之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02;8(3):75.

26) 전게서, p.75.

誤用汗法, 其人陽氣素虛, 致令陰氣逆升, 心中動悸不安, 冒, 汗出不止'이다. 建中補脾湯은 組成 및 主治가 張仲景의 小建中湯과 똑같다<sup>27)</sup>.

② 二旦<sup>28)</sup>, 六神<sup>29)</sup> 大小湯<sup>30)</sup>과 『傷寒論』 방제 비교

『傷寒論』, 『金匱要略』을 通覽하면 四神湯<sup>31)</sup> 가운데 白虎, 靑龍, 眞武의 3神만 보인다. 四神은 南北으로 對應하고 左右로 相隨하는데, 왜 張仲景方에는 유독 朱鳥만 빠져 있는가? 또 靑龍이 大小靑龍湯으로 나누어 놓은 이상 왜 白虎, 眞武는 大小를 나누지 않았는가? 이는 문화유전을 근거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데, 張仲景 原書 『傷寒雜病論』 중에는 朱鳥湯이 있었으나, 단지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변천하여 대량의 經方이 기록된 『傷寒雜病論』 등의 책이 망실된 지가 너무 일찍, 아주 오래되어, 晉代 王叔和가 다시 本書를 수집하였을 때조차도 역시 그 원형을 보기가 매우 어려워서 마침내 우리들에게 영원한 迷題를 남겼다.

『法要』의 기록에 따르면, 陶弘景의 말을 빌어 '外感天行의 經方 치료에는 二旦, 六神의 大小 등의 湯이 있다. 옛날 南陽의 張機는 이 여러 가지 方에 의거하여 『傷寒論』 한 부를 지었는데, 치료가 명확하고 다 갖추어져 있어서 후학들이 모두 우러러 받들었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陶弘景은 張仲景이 여기의 많은 經方에 의거해서 『傷寒論』을 저술해내고 그것을 운용하여 外感天行病을 치료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傷寒論』 중에는 당연히 二旦, 四神의 大小 등의 湯, 즉, 大小陽旦湯, 大小陰旦湯, 大小靑龍湯, 大小白虎湯, 大小朱鳥湯, 大小玄武湯 등의 12方을 포괄하고 있으며, 모두 東漢以前의 古佚 經方의 일종이다. 張仲景이 단지 靑龍, 白虎, 眞武만 수록하고 朱鳥를 누락하기란 불가능하고 또 大小靑龍湯만 수록하고 기타의 몇 가지 神들은 大小를 구분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외에, 『傷寒論』과 『金匱要略』 중에 단지 '陽旦證' 만 기재되어 있고, 陽旦湯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懸案인데, 宋나라 신하 林億 등이 校注할 때에

'陽旦湯은 바로 桂枝湯이다.' 라는 注를 내놓은 것으로 보는데, 宋代에 이르러 이미 二旦, 四神의 大小 등 湯의 원 자료를 누구도 볼 수 없었음을 설명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法要』를 통해 마침내 古佚의 二旦, 四神의 大小 12개 經方을 보게 되었다.

『法要』의 四神湯 諸方이 張仲景의 저작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은 兩者가 『湯液經法』에서 同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陶弘景은 『輔行訣』 중에서 '商나라에는 제상 伊尹이 있었는데, 『湯液經法』을 지었다. 처방은 ...모두 360首인데, 실로 萬代醫家の 規範이고 蒼生護命의 大寶이다.', '漢, 晉시대 이후의 여러 이름난 의사들의 무리, 張機, 衛汜, 華元化 ... 모조리 이 『湯液經法』을 스승으로 본받아 질병의 고통을 연민으로 구하고 중생들에게 복을 지었다. 그 사이 증감되어 비록 다른 것을 천단하고 혹은 새로운 효과에 이르기도 하여 舊經을 어지럽히는 듯하지만 그 취지는 여전히 方圓의 規矩이다.' 라고 하였는데, 張仲景, 華陀 등의 名醫들이 모두 『湯液經法』을 본받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傷寒論』에서는 四神湯 중에 三神 네 가지 방만 나타나고 있는가? 陶弘景은 『法要』에서 '靑龍은 宜發하는 方으로 麻黃을 위주로 한다. 白虎는 收重하는 方으로 石膏를 위주로 한다. 朱鳥는 清滋하는 方으로 鷄子黃을 위주로 한다. 玄武는 溫滲하는 方으로 附子를 위주로 한다...陰陽을 升降시키고 金木을 交互시키며 水火를 既濟시키니 이에 神明한 劑이다. 張機가 『傷寒論』을 지으면서 道家의 명칭을 피하였으므로 그 方이 모두 정식 명칭이 아니고, 단지 어떤 藥名을 方名으로 했으니, 主治를 미루어 봄으로써 알 따름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이는 張仲景 『傷寒論』에서 四神湯方의 기록이 불완전한 원인의 소재이다. 또한 張仲景 四神湯 8方이 『傷寒論』과 『金匱要略』 중에 方方이 모두 있는데 단지 道家의 명칭을 피해서 몇 가지 방제는 그 정식 명칭을 전혀 쓰지 않고 어떤 藥名으로 方名을 명명하였음을 말해 준다<sup>32)</sup>.

이에 主治와 方藥의 조성에 의해 『法要』와 『傷寒論』, 『金匱要略』의 방제를 비교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法要』에는 56首의 經方이 현존한다. 그 중 大小瀉肝補肝湯이 4首, 大小瀉心補心湯이 8首, 大小瀉脾補脾湯이 4首, 大小瀉肺補肺湯이 4首, 大小瀉腎補腎湯이 4首, 瀉五臟方이 5首, 救五臟除勞損病方이 5首, 二旦湯(大小陰陽旦 및 正陽

27) 전게서, p.75.

28) 陽旦湯, 陰旦湯을 가리킨다.

29) 六神은 五方을 지킨다는 여섯 가지 神으로, 靑龍은 東, 白虎는 西, 朱雀는 南, 玄武는 北, 句陳, 騰蛇는 中央을 각각 지킨다. 여기서는 六神의 이름을 딴 靑龍, 白虎, 朱雀, 玄武, 句陳, 騰蛇의 여섯 가지 湯방을 가리킨다.

30) 二旦, 六神湯은 또한 大, 小로 나뉜다. 즉, 大陽旦湯, 小陽旦湯, 大陰旦湯, 小陰旦湯, 大靑龍湯, 小青龍湯, 大白虎湯, 小白虎湯, 大朱鳥湯, 小朱鳥湯, 大玄武湯, 小玄武湯, 大句陳湯, 小句陳湯, 大騰蛇湯, 小騰蛇湯을 말한다.

31) 四神은 靑龍, 白虎, 朱雀, 玄武를 말한다.

32) 謝盤根, 「張仲景 '四神湯' 探源」, 『河南中醫』, 1996;16(3):138.

旦湯을 포괄한다), 六神湯이 12方, 救五臟中惡卒瀉方이 5首인데, 이 중 張仲景의 經方과 유사한 것은 18首이다.

小陽旦湯은 방약조성, 주치가 張仲景의 桂枝湯과 똑같고, 그 복용 방법은 仲景의 방식보다 약간 조잡하여, ‘위의 처방을 물 7승으로 다려서 3승을 취하여 1승을 따뜻하게 복용하고, 복용이 끝나면 곧바로 뜨거운 죽 한 그릇을 훌쩍 훌쩍 마셔서 약력을 보조하고, 조금 땀이 나도록 하되 땀을 흥건할 정도로 많이 내서는 안 되는데, 땀을 내면 병이 제거되지 않는다. 만약 땀이 나지 않으면 뒤따라 복용하고 차도를 보이면 멈춘다. 하루에 3번 복용한다. 만약 膠飴 1升을 가하면 正陽旦湯이 된다.’ 라고 하였다. 正陽旦湯은 張仲景의 小建中湯이다. 大陽旦湯은 곧 張仲景의 黃芪建中湯에 人參을 가한 것으로 ‘凡病自汗出不止, 氣息惛惛, 身勞無力, 每惡風涼, 腹中拘急, 不欲飲食, 皆宜此方’ 이라고 하였다. 大陽旦湯은 小柴胡湯과 유사하나 芍藥 한 가지만 많고 主治는 역시 같다. 小陰旦湯은 張仲景의 黃芩湯에 生薑을 가한 것으로 그 主治는 黃芩湯과 비슷하다. 小青龍湯은 主治 및 方藥이 麻黃湯과 같다. 大靑龍湯은 張仲景의 小青龍湯과 主治 및 方藥이 같다. 小白虎湯은 張仲景의 白虎湯과 그 方藥의 組成, 主治 및 服藥法이 모두 같다. 大白虎湯은 곧 張仲景의 竹葉石膏湯인데, 主治는 같으나, 이 방에는 生薑을 썼고 張仲景은 人參을 썼다. 小朱鳥湯은 張仲景의 黃連阿膠湯이다. 小玄武湯은 곧 張仲景의 眞武湯으로 主治 및 方藥이 모두 같은데 玄宗의 諱를 피하기 위해서 玄武를 眞武로 고쳤다. 大玄武湯은 ‘腎氣가 지쳐서 아랫배가 차고 등허리가 무거우며 팔다리가 무기력하고 소변이 불리하고 대변은 鴨溏하면서 하루에 십 여 차례 보고, 기력이 약한 것<sup>33)</sup>’ 을 치료한다. 組成은 곧 張仲景의 眞武湯과 理中湯의 合方이다<sup>34)</sup>.

이상 18首의 방제를 총괄하면, 張仲景의 經方과 많은 유사한 곳이 있고 단지 方名만 서로 다르며 특별히 二旦 및 六神湯의 12首의 방제 중 11首의 방제가 張仲景의 經方과 서로 유사하다. 이것이 바로 『法要』에서 이르기를 ‘外感天行的 經方 치료에는 二旦, 六神의 大小 등의 湯이 있다. 옛날 南陽의 張機는 이 여러 가지 방에 의거하여 『傷寒論』 한 부를 지었다.’ 고 한 말이다. 張仲景 桂枝湯의 啜熱稀粥法, 麻黃湯의 漬服法, 白虎湯, 小青龍湯 및 和解하는 小柴胡湯 등의 방제는 모두 그가 독창한 것이 아니고 『湯液經法』 중에 일찍이 이미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다. 이것은 『傷寒雜病論』이 古佚書인 『湯液經法』에서 기원하였음을 설명한

다. 仲景은 계승하는 기반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였고, 또한, 의료를 행하는 중에 『湯液經法』 중의 많은 방제에 내포된 내용을 한걸음 한걸음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하고, 그 주치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그리하여 이른바 經方이란 것을 형성하였다<sup>35)</sup>.

이 단락에서는 二旦, 四神方의 主藥 및 주요 효능을 지적하였을 뿐, 句陳方 및 騰蛇方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句陳과 騰蛇의 4가지 방은 王淑民이 1991년 재차 張大昌 선생을 방문했을 때에 張선생의 筆寫本을 근거로 補入한 것이다. 句陳方은 人參, 甘草를 위주로 益氣和中하는 방이다. 騰蛇方은 枳實, 厚朴을 위주로 攻下하는 방이다<sup>36)</sup>.

小句陳湯은 곧 『傷寒論』의 理中丸에서 白朮을 빼고 大棗를 더한 것이다. 大句陳湯은 곧 『傷寒論』, 『金匱要略』의 半夏瀉心湯, 甘草瀉心湯과 같으나 生薑과 乾薑의 차이 뿐이다. 기타 서로 유사한 방제로는 『傷寒論』의 黃連湯에서 桂枝를 黃芩으로 바꾼 것과 『傷寒論』의 生薑瀉心湯에서 乾薑을 빼 것 등이 있다. 小騰蛇湯은 『傷寒論』의 大承氣湯에서 大黃을 甘草로 바꾼 것이다<sup>37)</sup>.

이상 『法要』와 『傷寒論』의 관계를 비교하여 보았는데, 組方과 主治는 같고 方名만 다른 경우, 組方은 같은데 主治와 方名이 모두 다른 경우, 方名은 서로 같은데, 組成과 主治가 모두 다른 경우, 하나의 방에 여러 가지 방을 포함하는 경우, 組成은 같고 主病은 다른데 방약의 가감이 같은 경우의 5가지로 묶어 볼 수 있다<sup>38)</sup>.

한편, 張仲景이 方名을 바꾼 것을 두고 道家의 명칭을 피한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역대 대대로 책을 傳寫하면서 생긴 오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道家의 명칭을 피하고 또는 어떤 藥名으로 개칭하고 단지 古方 중의 약물과 치료의 내용만을 남겨 둔 것과 관련하여 張仲景이 이러한 방법을 쓴 것은 아마도 당시 황건적의 봉기와 유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왜냐하면 이 농민 봉기는 도교활동으로 비밀리에 연락하던 것이기 때문인데, 작자는 조정에서 임명한 관리인 張仲景이므로, 그가 『傷寒雜病論』을 지으면서 道家의 藥方名을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sup>39)</sup>.

35) 전게서, p.75.

36) 王淑民, 전게서, p.26.

37) pp.25-6.

38) 張儂劉強, 「敦煌本『輔行訣藏府用藥法要』古醫方の源流, 『敦煌研究』, 2002;(6):65-8.

39) 전게서, p.65.

33) 腎氣虛疲, 少腹中冷, 腰背沈重, 四肢清, 大便秘, 大便鴨漉, 日十餘行, 氣極力弱

34) 張永文, 전게서, p.75.

### III. 總括 및 結論

敦煌石窟에서 출토된 또 하나의 醫學殘卷인 『輔行訣藏府用藥法要』는 宋代이전의 필사본으로 내용이 완전한 內科學 전문서이다<sup>40</sup>). 『輔行訣藏府用藥法要』는 민간에 유행하던 敦煌醫學卷子の 하나로 ‘和陽隱居陶弘景撰’이라고 적혀 있는데, 고증에 따르면 陶弘景의 門徒인 述士의 작품이다. 대략 梁에서 隋唐시기 사이에 成書되었고, 그 정리연대는 宋代이전이다<sup>41</sup>). 이 책은 臟腑理論을 근거로 하고, 五行學說을 기초로 하여 정체관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질병의 治療規則과 治病方法을 논술하였다. 매우 높은 학술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에서도 실용적인 의의가 있다<sup>42</sup>).

『輔行訣藏府用藥法要』는 원래 두루마리에 기재된 내용은 역대 어디서에도 유전된 적도, 기재된 적도, 간행된 적도 없으니, 실로 후인이 터무니없이 적당히 꾸며낸 작품이 아니며, 매우 높은 사학적, 의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도교의학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쉽게 얻을 수 없는 진귀한 자료이다<sup>43</sup>). 또한, 『法要』라는 책 중에는 『內經』과 古佚書인 『湯液經法』의 몇 가지 내용들이 보존되어 있어 비교적 높은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林億이 교정한 『內經』과 仲景의 『傷寒雜病論』은 오늘날까지 유전되며 그 사이에 傳寫, 校正을 거치면서 錯簡, 傳寫의 오류를 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法要』는 敦煌의 藏經洞에 보관되어 있어서 流傳이나 校正을 거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하고 있으며, 가운데서 고서의 원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학술적인 가치는 소홀히 볼 수 없다<sup>44</sup>45).

『法要』에서 말하기를 ‘外感天行的 經方 치료에는

二攄, 六神의 大小 등의 湯이 있다. 옛날 南陽의 張機는 이 여러 가지 방에 의거하여 『傷寒論』 한 부를 지었는데, 치료가 명확하고 다 갖추어져 있어서 후학들이 모두 우려 받들었다.’ 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仲景의 『傷寒雜病論』은 二攄, 六神의 大小湯을 참조하여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二攄, 六神湯(실제로는 四神이다) 12首의 방제 중에 仲景方과 똑같은 방제는 8首가 있다. 小陽旦湯의 방제구성, 主治는 仲景의 桂枝湯과 똑같고, 그 복약 방법은 仲景의 방식보다 약간 조잡하여 ‘... 따듯하게 해서 一升을 복용하고, 복용이 끝나면 바로 뜨거운 죽 한 그릇을 훌쩍 훌쩍 마셔서 약력을 보조하고 조금 땀이 나도록 하되 땀을 흥건할 정도로 많이 내서는 안된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大陰旦湯은 仲景의 小柴胡湯과 비슷한데, 단지 芍藥 한 가지만 많고, 그 主治도 역시 같다. 小青龍湯의 主治 및 方藥은 仲景의 麻黃湯과 같으며, 大靑龍湯은 仲景의 小青龍湯과 主治 및 方藥이 같다. 小白虎湯은 바로 仲景의 白虎湯이며, 組成, 主治 및 服藥法이 모두 같다. 大白虎湯은 仲景의 竹葉石膏湯으로, 主治는 똑같으나 生薑을 사용했고, 仲景은 人參을 사용했다. 小朱鳥湯은 仲景의 黃連阿膠湯이며, 小玄武湯은 바로 仲景의 眞武湯으로 주치 및 방약이 똑같다. 이상 8首의 방제는 중경의 경방과 같은 점이 많고, 단지 方名만 다를 뿐이다. 仲景 桂枝湯의 啜熱稀粥法, 麻黃湯의 漬服法, 白虎湯, 小青龍湯 및 和解하는 小柴胡湯 등의 방제는 모두 그가 독창한 것이 아니고 『湯液經法』 중에 일찍이 이미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다. 이것은 『傷寒雜病論』이 古佚書인 『湯液經法』에 기원하였으며, 仲景은 계승하는 기반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였고, 또한, 의료를 행하는 중에 『湯液經法』 중의 많은 방제에 내포된 내용을 발전시켜 풍부하게 하고, 그 주치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그리하여 이른바 經方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sup>46</sup>).

40) 孟陸亮, 「敦煌醫學殘卷 ‘開九竅療法’ 初探」, 『甘肅中醫學院學報』, 1995;12(1):49.

41) 吳紅彥, 劉喜平, 「敦煌遺書中有關方劑學的文獻研究」, 『甘肅中醫學院學報』, 2003;20(2):48.

42) 孟陸亮, 전게서, p.49.

43) 叢春雨, 「『輔行訣藏府用藥法要』心病症治探秘」, 『上海中醫藥雜誌』, 2000;(2):28.

44) 張永文, 郭郡浩, 蔡輝, 전게서, p.5.

45) 張永文, 「以敦煌遺書『法要』探討張仲景經方之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02;8(3):75.

46) 전게서, p.5.

【辨五臟病證文并方】

	主治	構成	類似方
小瀉肝湯	治肝實,兩脇下痛,痛引少腹迫急,當有乾嘔者方	지실,작약,생강	
大瀉肝湯	治頭痛,目赤,多恚怒,脇下支滿而痛,痛連少腹迫急無奈方	지실,작약,감초,황금,대황,생강	
小補肝湯	治心中恐疑,時多惡夢,氣上衝心,越汗出,頭目眩暈者方	계지,건강,오미자,대조	
大補肝湯	治肝氣虛,其人恐懼不安,氣自少腹上衝咽,呃聲不止,頭目苦眩,不能坐起,汗出,心悸,乾嘔不能食,脈弱而結者方	계심,건강,오미자,선복화,대자석(一方作牡丹皮),죽엽,대조	
小瀉心湯1	治心中卒急痛,脇下支滿,氣逆攻膺背胛間,不可飲食,食之反篤者方	용담초,치자,행인	
大瀉心湯1	治暴得心腹痛,痛如刀刺,欲吐不吐,欲下不下,心中懊憹,脇背胸支滿,腹中迫急不可奈者方	용담초,치자,고삼,승마,두시,행인	
小補心湯1	治胸痹不得臥,心痛徹背,背痛徹心者方	과루,해백,반하	栝蒌薤白半夏湯
大補心湯1	治胸痹,心中痞滿,氣結在胸,時從脇下逆搶心,心痛無奈方	과루,해백,반하,지실,후박,계지	枳實薤白桂枝湯加半夏 栝蒌薤白桂枝湯
小瀉心湯2	治胸腹支滿,心中躁動不安者方	황련,황금,대황	瀉心湯 大黃黃連瀉心湯加黃芩 附子瀉心湯減附子
大瀉心湯2	治心中怔忡不安,胸膈痞滿,口中苦,舌上生瘡,面赤如新粧,或吐血,衄血,下血者方	황련,황금,작약,건강,감초,대황	
小補心湯2	治血氣虛少,心中動悸,時悲泣,煩躁,汗出,氣噎,脈時結者方	대자석(일방작목단피),선복화,죽엽,두시(일방작산수유)	
大補心湯2	治心中虛煩,怔忡不安,怔忡如車馬驚,飲食無味,乾嘔,氣噎,時或多唾涎,其人脈結而微者方	대자석(일방작목단피),선복화,죽엽,두시(일방작산수유),인삼,감초,건강	
小瀉脾湯	治脾氣實,下利清穀,裏寒外熱,肢冷,脈微者方	부자,건강,감초	四逆湯
大瀉脾湯	治腹中脹滿,乾嘔,不能食,欲利不得,或下利不止者方	부자,건강,황금,대황,지실,감초	
小補脾湯	治飲食不消,時自吐利,吐利已,心中苦飢,無力,身重,足痠,善轉筋者方	인삼,감초,건강,백출	理中丸
大補脾湯	治飲食不消,時自吐利,其人枯瘦如柴,立不可動轉,口中苦乾渴,汗出,氣急,脈微而結者方	인삼,건강,감초,백출,맥문동,오미자,선복화(일방작목단피)	
小瀉肺湯	治咳嗽上氣,胸中迫滿,不可臥者方	정력자,대황,작약	
大瀉肺湯	治胸中有痰涎,喘不得臥,大小便閉,身面腫,迫滿,欲得氣利者方	정력자,대황,작약,감초,황금,건강	
小補肺湯	治汗出,口渴,少氣不足而息,胸中痛,脈虛者方	맥문동,오미자,선복화(일방작목단피),세신	
大補肺湯	治煩熱汗出,少氣不足而息,口苦乾,耳聾,脈虛而快者方	맥문동,오미자,선복화(일방작목단피),세신,지황,죽엽,감초	
小瀉腎湯	治小便赤少,少腹滿,時足脛腫者方	복령,감초,황금	
大瀉腎湯	治小便赤少,或時溺血,少腹迫滿而痛,腰如折,耳鳴者方	복령,감초,대황,황금,작약,건강	
小補腎湯	治精少,骨蒸羸瘦,脈快者方	지황,죽엽,감초,택사	
大補腎湯	治精氣虛少,腰痛,骨痿,不可行走,虛熱衝逆,頭目眩,小便不利,脈軟而快者方	지황,죽엽,감초,택사,계지,건강,오미자	



【五臟瀉方】

	主 治	構 成	類 似 方
瀉肝湯	救誤用吐法,其人神氣素虛,有痰癖,嘔不止,驚煩不寧方	지실,작약,대자석(一方作牡丹皮),선복화,죽엽(一方有生薑)	
瀉心湯	救誤用清下,其人陽氣素實,外邪乘虛陷入,治心下痞滿,食不下,利反不止,雷鳴腹痛方	황련,황금,인삼,감초,건강(一方有大棗)	乾薑黃芩黃連人參湯加甘草
瀉脾湯	救誤用冷寒,其人陰氣素實,陽氣不行,治腹中滯脹,反寒不已方	부자,건강,맥문동,오미자,선복화(一方有細辛)	
瀉肺湯	救誤用火法,其人血素燥,致令神識迷妄,似近于癡,吐血,衄血,胸中煩滿氣結方	정력자,대황,생지황,죽엽,감초	
瀉腎湯	救誤用汗法,其人陽氣素虛,致令陰氣逆升,心中動悸不安,冒汗出不止方	복령,감초,계지,생강,오미자	桂枝五味甘草湯加生薑

【救五臟諸勞損病方】

	主 治	構 成	類 似 方
養生補肝湯	治肝虛,筋極,腹中堅澀,大便闕塞方	족초,계심,구엽,작약,망초,호마유	
調中補心湯	治心勞,脈極,心中煩悸,神識恍惚方	선복화(일방작목단피),속자,충엽,두시(일방작산수유),치자,인삼	
建中補脾湯	治脾虛,肉極,羸瘦如柴,腹中拘急,四肢無力方	감초,대조,생강,黃飴,작약,계심	小建中湯
寧氣補肺湯	治肺虛,氣極,煩熱,汗出,口舌渴燥方	맥문동,오미자,白朮漿,개자,선복화,죽엽	
固元補腎湯	治腎虛,精極,遺精,矢溺,氣乏無力,不可動轉,唾血,咯血方	지황,薯蕷,고주,감초,해백,건강	

【二旦六神大小湯】

	主 治	構 成	類 似 方
小青龍湯	治天行發熱,惡寒,汗不出而喘,身疼痛,脈緊者方	마황,행인,계지,감초	麻黃湯
大青龍湯	治天行病表不解,心下水氣,乾嘔,發熱而喘咳不已者	마황,세신,작약,감초,계지,오미자,반하,건강	小青龍湯
小白虎湯	治天行熱病,大汗出不止,口舌乾燥,飲水數升不已,脈洪大者方	석고,지모,감초,경미	白虎湯
大白虎湯	治天行熱病,心中煩熱,時自汗出,舌乾,渴欲飲水,時啾啾不已,久不解者方	석고,맥문동,감초,경미,반하,생강,죽엽	竹葉石膏湯易人參爲生薑
小朱鳥湯	治天行熱病,心氣不足,內生煩熱,坐臥不安,時下利純血如鷄鴨肝者方	계자황,아교,황련,황금,작약	黃連阿膠湯
大朱鳥湯	治天行熱病中,下惡毒痢,痢下純血,日數十行,羸瘦如柴,心中不安,腹中絞急,痛如刀刺方	계자황,아교,황련,황금,작약,인삼,건강	
小玄武湯	治天行病,腎氣不足,內生虛寒,小便不利,腹中痛,四肢冷者方	복령,작약,백출,건강,부자	眞武湯
大玄武湯	治腎氣虛疲,少腹中冷,腰背沈中,四肢冷清,小便不利,大便鴨溏,日十餘行,氣慳力弱者方	복령,백출,부자,작약,건강,인삼,감초	眞武湯加人參甘草 眞武湯與理中湯合方
小句陳湯	治天行熱病,脾氣不足,飲食不化,腰痛,下利方	감초,건강,인삼,대조	理中丸去白朮加生薑
大句陳湯	治天行熱病,脾氣虛,邪熱入裏,腹中雷鳴切痛,嘔吐下利不止者方	감초,인삼,반하,생강,황금,황련,대조	半夏瀉心湯 甘草瀉心湯 黃連湯易桂枝爲黃芩 生薑瀉心湯去乾薑
小騰蛇湯	治天行熱病,胃氣素實,邪氣不除,腹滿而喘,汗出不止者方	지실,후박,감초,망초	大承氣湯 易大黃爲甘草
大騰蛇湯	治天行熱病,邪熱不除,大腸閼結,腹中大滿實,汗出而喘,時神昏不識人,宜此方,急下之方	지실,후박,감초,대황,정력,생강,망초	

## IV. 참고문헌

### 【單行本】

1. 王淑民, 『敦煌石窟秘藏醫方』, 北京:北京醫科大學中國協和醫科大學聯合出版社, 1999.
2. 유진보 著, 전인초 譯,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서울:아카넷, 2003.
3. 叢春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4.
4. 叢春雨, 『敦煌中醫藥精萃發微』,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0.
5. 申尙玟, 金楨沆, 「傷寒雜病論의 診斷體系에 관한 研究」,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8;12(1).
6. 吳紅彥, 劉喜平, 「敦煌遺書中有關方劑學的文獻研究」, 『甘肅中醫學院學報』, 2003;20(2).
7. 王淑民, 龐莎莎, 「敦煌吐魯番出土古本五臟論的考察」, 『中華醫史雜誌』, 1995;25(1).
8. 張儂劉強, 「敦煌本『輔行訣藏府用藥法要』古醫方的源流」, 『敦煌研究』, 2002;(6).
9. 張永文, 郭郡浩, 蔡輝, 「敦煌遺書 輔行訣藏府用藥法要探究」, 『安徽中醫學院學報』, 2003;22(3).

### 【論文】

1. 竇迎春, 『傷寒論 方劑的文獻研究』,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2. 孟陸亮, 「敦煌醫學殘卷 開九竅療法 初探」, 『甘肅中醫學院學報』, 1995;12(1).
3. 牟慧琴, 「敦煌‘大陽旦湯’與 金匱 陽旦湯關係考」, 『甘肅中醫』, 1997;10(3).
4. 謝盤根, 「張仲景‘四神湯’探源」, 『河南中醫』, 1996; 16(3).
10. 張永文, 「以敦煌遺書 法要 探討張仲景經方之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02;8(3).
11. 鄭城采, 「傷寒理論의 發展史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9.
12. 朱定華, 「敦煌殘卷醫籍張仲景 五藏論 辨析」, 『上海中醫雜誌』, 1985;(10).
13. 叢春雨, 「‘八法’與敦煌遺書古醫方」, 『上海中醫藥雜誌』, 1997;(6).
14. 叢春雨, 「輔行訣藏府用藥法要 心病症治探秘」, 『上海中醫藥雜誌』, 2000;(2).